

도시환경 및 문화의 질은 환경질의 부하량, 환경질의 쾌적성, 환경질의 안전성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질의 부하량은 대기·수질·소음으로 대기오염도, 수질오염도,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처리율, 소음도를 제시하였다. 대기 및 수질, 소음오염도는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적절한 환경조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대기,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과 생활소음 규제 기준으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이 있다. 상수도 보급률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일반수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공업용수도가 있다. 하수처리율은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분뇨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생태계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표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이 있다.

환경질의 쾌적성은 신·재생에너지와 폐기물 처리량으로 구분하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를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태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이 있다. 폐기물 처리량은 연간 지자체가 수거하는 폐기물 처리량이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있다.

환경질의 안전성은 에너지 자립도로 구분하였으며, 총전력 생산량 중 지자체 에너지 자립도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 환경 친화적인